

그 넉넉하고 활기찬 새해 으뜸날

우리 옛 문헌에 나타난 설날의 세시풍속

이택희

중앙일보 기자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을 때부터 어른이 된 것”이란 말이 있다. 성장하면서 되뇌어봐도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렇다고 어른은 명절을 싫어한다는 뜻은 아닐 터이다. 그 넉넉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누리려 싫다 하겠는가.

사회와 문화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구조와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새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명절은 설과 한가위다. 특히 넉넉함과 활기에선 설이 으뜸이다. 한가위에 오곡백과가 익는다 하여 넉넉함을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재래종 가운데 오곡의 첫째인 쌀이 한가위엔 여물지 않고, 백과의 맏이인 사과 또한 단물이 채 오르기 전이니 첫배만 부른 넉넉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해 설은 가을걷이 끝낸 뒤 겨우살이 마련 다하고 배 짜고 숨 타 새웃 지어입고 맞던 새해의 으뜸날인지라 여유와 풍요가 어우러진, 훨씬 기다려지는 명절이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아이들은 새 배에 새 솜 넣은 설빔 뽕뽕 꿈에 젖어 동지만 지나도 날마다 손가락을 바빠 움직여댔다. 이윽고 새해가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설빔 차려 입고 歲饌, 歲酒 진설하고 4대조까지 모셔 차례를 지낸다. 5대조 이상은 산소로 찾아뵙고 성묘를 한다. 차례가 끝나면 집안 어른들께 歲拜를 한 다음 세찬과 떡국으로 아침을 먹는다. 그리고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다닌다. 세배를 받는 사람은 어른에게는 세찬과 세주를, 아이들에게는 과자나 세뱃돈을 베푼다. 아울러 德談을 주고받는다. 덕담은 거리에서 마주치는 어른·아이나 친구들과도 나눈다.

설날 그믐밤에 하는 세배도 있으니 ‘묵은 세배’라 한다. 묵은 세배는 가까운 사이에서만 한다. 묵은 세배꾼들의 발걸음도 찾아들고 그믐밤 자정이 지나면 어둠 속에서 “복조리 사례”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자다말고 나와 한해동안 쓸 조리를 사 들고 들어갔다. 이때 못 산 집에서는 이른 아침에 샀는데, 일찍 살수록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때 조리를 사두면 한해 내내 복이 많다 하여 복조리라 불렀다.

설음식으로 빼놓지 않는 것이 흰떡이고, 흰떡을 갈로 썰어 국을 끓이면 떡국이다. 설날 아침엔 반드시 떡국을 먹는다. 이를 나이떡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선 正祖때 씌어진 「京都雜誌」에 이미 “나이를 물을 때 떡국 몇그릇째

먹었느냐고 한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나이떡국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풍속임일 알 수 있다. “평 대신 닭”이란 말도 떡국은 본디 꿩고기를 넣어 끓였는데 꿩고기가 귀해져 닭고기를 쓰게 되며 생긴 속담이다.

집안의 필요에 따라서는 정초에 安宅고사(안택주)를 올린다. 안택을 무당이 맡아서 하지만 무당 없이 주부가 맡아 하는 경우도 많다. 터주·조상·조왕·업신·삼신·洞神 등을 제사하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데, 영남지방에서는 ‘논부굿’이라 한다.

설에는 점복도 많이 본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토정비결과 율점이다. 율점은 놀이성이 강하다. 도·개·걸·웃을 1·2·3·4로 하여 율을 세번 던져 세자리 수를 얻는다. 그러면 111부터 444까지 64가지 패수가 나온다. 패수에 따라 정해진 占辭가 그해의 운수다. 「京都雜誌」는 패수별 점사를 정리해 신고 있다. 설날 처음 듣는 짐승의 소리로 한해를 점치는 방법도 있는데 ‘聽讖’이라 한다.

설날 머리카락 태우기 풍속도 있었다. 지난 날 모두가 머리를 기를 때 머리를 빗을 적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한해동안 모아두었다가 설날 황혼에 문밖에서 태워 없앴다. 그러면 염병을 피한다는 俗信에 따른 것이다. 충청·전라 일부지역에선 설날 그믐 저녁에 태우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해의 12支에 따라 9년주기로 3년씩 三災年에 든다고 믿었다. 三災를 면하기 위해서는 설날 때 세 마리를 그려 방의 출입문 위 벽에 붙여둔다. 요즘도 한 몸 세 머리가 세 방향을 쏘아보고 있는 매 그림 부적을 붙인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마을을 돌며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를 한다. 대추·감·밤나무 따위를 찾아다니며 큰 가지가 갈라진 사이에 묵직한 돌을 끼워놓는 것이다. 사람이 결혼해야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나무도 시집을 보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설 무렵의 놀이로는 널뛰기, 율놀이, 연날리기, 돈치기, 陸卿圖(혹은 從鄉圖)놀이(칸칸이 관직을 표시하고 주사위나 율을 던져 목표를 찾아가는 놀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 歲時風俗이라 한다. 설날을 歲時라 부르기도 하거나 세시풍속은 철을 따라 행해지는 자연·人事에 대한 민속적인 여러가지 연중행사를 일컫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歲時記라 한다.



율놀이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대표적인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歲時記로는 「京都雜誌」「涇陽歲時記」「東國歲時記」가 있다. 그리고 이들보다 3, 4백년쯤 앞서는 「東國輿地勝覽」도 각 고을마다 풍속항을 따로 두어 기록을 남기고 있으니 앞선 자료가 될 것이다. 憲宗때 丁學游가 지은 「農家月令歌」도 세시풍속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이 가운데 결정판은 洪錫謨의 「東國歲時記」다. 1819년 金邁淳이 쓴 「涇陽歲時記」보다 30년 뒤에 나왔는데 위 세 가지 중 내용이 가장 세밀하고 분량도 많으며 「東國輿地勝覽」을 두루 인용하여 지방에 관한 것까지 정리, 비교하고 있다. 柳得恭의 「京都雜誌」를 밑바탕하여 내용을 보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체제가 흡사하고 잘못된 부분까지 그대로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을 이용한 고증이나 유래를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모든 기원을 중국쪽으로 찾으려 한 억지도 눈에 띈다.

연대가 가장 앞서는 「京都雜誌」는 완성시기가 불확실하지만 正祖년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2권1책으로 1권 ‘풍속’에서는 19항목에 걸쳐 당시 관행의 실상과 그 유래를, 비판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사대부의 생활상에 국한돼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2권 ‘歲時’에서는元旦부터 除夕까지 서울의 세시풍속을 19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또한 중국 중심 풀이가 지나쳐 유래나 연원을 밝힌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涇陽歲時記」는 涇陽, 즉 서울의 풍속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체제·내용·저술·태도 등이 앞의 두 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세 가지 歲時記는 필사본 등으로 따로 전해오다 1911년 崔南善이 이끄는 光文會에서 처음 활자본·합본으로 나오게 됐고 1969년 을유문고로 李錫浩의 번역본이 나온 이래 세시풍속 관련 자료집·연구서 등에 두루 참고되고 부록으로도 많이 실려오고 있다. 1971년에는 在日사학자 姜在彦의 번역으로 해제를 곁들인 日譯本이 平凡社 東洋文庫(193)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 세시풍속 전반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의 책으로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가 낸 ‘한국민속대관’ 제4권(1982)과 任東權의 「한국세시풍속연구」(集文堂, 1985)를 손꼽을 수 있겠고, 문고본으로 任東權의 「한국세시풍속」(瑞文堂, 1976), 張德順의 3인 共著 「韓國風俗誌」(乙酉文化社, 1971)가 있다.

요즘 명절엔 전국이 흥역을 앓는 歸省치레 세시풍속이 새로 생겨 설쇠기도 보통일은 아니지만 올 설은 마음이라도 넉넉하고 활기차게 맞자. 그믐밤에는 온 가족 모여 집안 구석구석 불 밝히고 깔깔 웃음으로 마음 열고 날 새우며(守歲) 밝아오는 새해 으뜸날을 맞아보자.